고독에의 도전

정 은 보

「학력사항」
- 대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사항」
- 제28회(1984년)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합격
-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현) 기획재정부 차관보

Ⅰ. 머리말

이 합격기를 씀에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자못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나 자신이 지내온 3년여의 고시생활에서 가장 방해요소였던 것이 외로움이었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곧 고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첩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고독에의 도전'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고독에 대한 도전으로서 나의 수험생활의 과정을 쓰고 그 다음 동도제현의 공부방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방법에 대하여 쓰고자 한다.

Ⅱ. 격랑의 수험생활

1. 도전기

1980년 3월 재수의 과정을 겪고 들어선 서울대는 그 당시 어지러웠던 정국과 학생들의 시

위로 5.17휴교령에 의해 거의 100여일 동안의 긴 잠에 들어갔다. 대학 초년생인 나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등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이럭저럭 1학년이 지나가고 2학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2학년이 되면서 같은 학우 친구들 중에서 고시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CPA 공부를 시작하는 급우들이 많았으며 나역시 행정고시를 최종의 목표로 삼고 그 전초전을 CPA 준비를 여름 방학과 더불어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2학년으로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CPA 시험공부는 명목적이었고 실제로는 아직 해방감을 구가(謳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시공부라 할 수도 없는 공부를 하면서 2학년시절도 흘려 보내버리고 3학년으로 어느덧 다가섰다.

결국 그해 3월이 되면서 새로운 각오로 본격적인 도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8월에는 CPA 제1차시험 도전을 해보았다. 그러나 CPA시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제1차시험이라 합격의 예상점수를 거의 예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한 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CPA 제1차시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전혀 CPA 제2차시험 공부를 하질 못했다. 결국 제1차시험에 우리과에서 합격한 3명중 한 명이 되면서 개인적 신변문제를 정리하고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CPA 제2차시험 공부를 시작하였다.

2. 좌절기

CPA 제2차시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회계감사의 과락을 걱정하면서도 일면 합격의 가능성을 점쳐 보기도 하며 발표를 기다렸으나 역시 하나님은 공평한 판단을 내렸다.

아직 3학년이란 것으로 나 자신을 위안하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여 4학년 때는 행정고시만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CPA 시험성적을 알아 본 결과 0.27점 차이로 떨어진 것을 알고 다시 욕심이 생겼다. 조금만 더하면 합격이라는 생각에서 행정고시와 CPA시험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의 결과가 말 해 주듯이 이 결정은 대단한 실수였으며 나에 대한 지나친 과신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4학년 3 · 4 · 5월은 행정고시 제2차시험 공부에 주력하였고, 6월은 CPA 제1차시험에 할애하였다.

CPA 제1차시험에서 답안작성상 오류를 범하여 기대도 하질 않았었는데 어떻게 붙었고, CPA 제2차시험까지 남은 40일가운데 마지막 2주일정도만 공부하기로 하고 CPA 제1차시험을 발표하였던 7월 하순부터 행정고시 제1차시험을 준비하였다. 약 30일간의 행정고시 제1차시험 공부를 제외한 것은 우선 절대량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소치였다. 8월 24일에 행정고시 제1차시험을 보고 2주일 후에 다시 CPA 제2차시험을 보았다.

그러나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과욕의 결과는 나 자신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었다. 결국 행시는 제1차시험 마저, CPA는 또 다시 실패의 쓴 잔을 마셨다.

3. 재도전기

4학년말!

어떤 사람의 말대로 나는 대학 졸업시기에 느끼는 방황을 주관적으로는 나보다 더 심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으리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결국, 대학원에 진학하여 행정고시만은 제도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다행히 대학원 경영학과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다.

대학원시험이 끝난 후 겨울방학은 재도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작전계획을 세웠다. 먼저, 공부시간은 하루에 평균 10시간을 목표로 1주일 중 6일을 공부하며 60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1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제1차시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2월부터 제1차시험까지 식사후 1시간 정도씩, 하루 3시간을 제1차시험 공부에 할애하였다.

이러한 전체계획을 기준으로 세부계획으로서 과목별로 공부진도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매일의 진도표를 작성하고 하루 하루의 할당량의 달성여부를 점검하면서 하루의 순공부량을 체크해 나갔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기계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일로 종종 계획에서 이탈하기도 하였다. 계획에 없던 친구들과의 만남은 계획실천에 장애요소였고, 더욱이 식사문제 그리고 학교가 너무멀다는 문제 문제 때문에 조용하며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집에서 홀로 내방을 지키고 앉아 있노라면 대화에 대한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의미없이 책장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 하였다. 그래서 원래 겨울방학 동안 국민윤리를 제외한 2차시험 과목을 3회독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결국은 2회독도 똑바로 하지 못했다. 원래 회계학 공부는 CPA시험을 준비했던 관계로 하지 않았고 경제학의 경우 2,3학년때 미시 거시 정도는 수강을 하였으며 또한 CPA시험 공부 과정에서도 계속 보아왔고, 행정학, 행정법, 재정학, 화금론은 4학년 1학기 때 수강을 했던 관계로 어느 정도 체계는 잡아 두고 있었다. 특히 행정법은 비법계학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렇게 싫어하던 sub-note를 4학년 1학기 때 미리 하여 두었었다. 따라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편의상 1회독으로 간주한다면 겨울방학이 끝날때까지 국민윤리를 제외하고 약 3회독 정도를 한 것 같고 국민윤리는 대강 한 번 읽어보아 전체적 윤곽만 잡아 두었다.

그리고 제1차시험 공부는 전 해에 기본서는 한두 번 읽어보았으나 문제집을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월부터 먼저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더 읽고(영어는 겨울방학 때 제1차시험 공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헌법, 민법, 국사, 경제학 문제집을 한 권씩 풀어보았다. 그러나 제1차시험 공부마저도 실제로 완전히 계획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으나 제2차시험 공부보다는 좀 나은 실천력을 보았다.

이 정도의 공부를 하고 나니 벌써 3월 개강을 맞이하게 되었고, 개강과 더불어 다시 한 학기 동안 공부 계획표를 마련하였다. 이번에는 꼭 100% 완수하여야겠다고 재삼 다짐하였다.

대학원이라서 일주일에 3일만 학교에 가면 되었으나 워낙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약 1시

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교갔다가 집에오면 차안에서 시달린 3시간 30분이 여독(旅毒)이 되어 도저히 책을 볼 엄두가 안났다. 또한 학교공부 역시 만만할 수 없었고 대학원이라 report · paper 등의 숙제가 나를 더욱 괴롭혔다. 결국 3월 한 달 정도를 제외하면 4,5,6월은 계획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다시 여름 방학만을 기대하면서 1기말을 보냈다.

결국 그 동안 공부한 것을 점검해 본 결과 제1차시험 공부는 그런대로 헌법, 민총, 국사 문제집을 새로 한 권씩 풀어 보았으나 제2차시험 공부는 1회독 정도에 그친 것 같았다.

1학기가 끝나고 6월 하순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놓쳐서는 안된다."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먼저 지금까지 하여 왔던 공부량을 우선 점검하였다. 국민윤리 2회독 정도 그리고 타과목들은 3~4회독 정도였고 회계학의 경우 작년 CPA 공부 이후에는 전혀 보질 않았다. 초조했다. 특히 기출문제를 보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제1차시험 10일 전까지 제2차시험 공부와 제1차시험 공부를 병행하였고 이 때에는 제1차시험의 경제학을 의식하여 주로 경제학 공부에 주력하면서 1차 문제집에서 체크해 둔 문제를 하나씩 보아 나갔다.

그후 10일 동안은 제1차시험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계속 문제집을 반복해 나갔다. 이 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영어였다. 1차는 영어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영어에서 점수차가 상당히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제1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영어를 거의 준비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물어본 TOEFL 책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준비한 것에 의지하면서 예년에 비해 몹시 어려웠던 국사를 마지막으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에 여념이 없을 환기, 익수의 마중을 받으며 제1차시험장을 빠져 나왔다.

제1차시험을 보고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제는 남은 제2차시험을 위한 최종 점검의 시간이었다. 우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압축시킨 기본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암기를 반복하여 제1차시험 후 40여일 동안에 2회독 정도를 할 수 있었고 시험 전날은 다음날 시험과목을 한 과목당 4시간 정도로 1회독할 수 있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어설프게나마 6~7회독 정도를 하고 제2차시험장에 나갈 수가 있었다.

먼저, 국민윤리의 경우 기본서를 중심으로 전체적 윤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문제집으로서 보충하였다. 그러나 원래 국민윤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28회의 경우도 상당히 예상밖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국가발전과 국민정신교육의 상관관계」는 경제발전에 따른 물질주의의 팽배에 대한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53.66점).

두번째로, 행정법은 sub-note를 토대로 하여 각 단원별 상관관계를 중시하면서 세부적인 암기를 하였다. 문제 또한 전형적인 「행정행위 하자의 효과」가 나와서 sub-note의 목차별로 차근차근 적어갔고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조리」는 상상했던 문제라 잘썼으나 「환지예정지」의 문제는 공용환지에서 환지처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여 세부적 문제로서 환지 예정지는 겨우 공용환지의 일반적인 것만 적고 말았다(51.33점).

세번째, 행정학의 경우는 나의 전공인 경영학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고 특히 조직론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것 같아 큰 부담은 없었으나 한국의 행정의 현실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현실적인 문제점을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한 것이 주효하여 「우리나라 행정개혁 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3문제도 그런대로 써 내려갔다. 그러나 작은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는 결론을 시간상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몹시 걱정을 하였으나 상상외의 점수를 받은 것 같다(62.33점).

넷째, 경제학은 워낙 범위가 넓은 데다가 한국의 현실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까지 요구하고 있어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공부하기 난해한 과목인 것 같다. 따라서 나역시 경제학에서 고득점은 기대하지 않았고 타수험생의 평균점수 정도만 생각하고 공부하였다. 경제학의 일반적 범위를 개괄한다면 먼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서 국민소득론 · 화폐금융론 · 재정론 · 국제경제 · 경제변동론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학은 보통 한권 정도로 충분하나 거시경제학의 경우에서는 재정학 · 화금론이 재경직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고 화금론은 거시경제학책에서 잘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각론으로 볼 필요가 없으나 국제경제와 경제변동론이 문제였다. 국제경제는 자주 출제되어 있어 기본서를 한 권 정하여 국제경제의 주요이론부분만 발췌하여 공부하였으나, 경제변동론의 경우가 문제였다. 왜냐하면 특별히 기본서를 정하여 공부하기에는 시간의 낭비 같았고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론과 거시경제학의 경제변동론 part를 여러권 참고하여 경기변동모형이나 경제성장모형 그리고 경제발전모형을 나름대로 정리해 두었다. 예년과 달리 50점의 큰 문제가 미시경제학의 소비자행동론에서 출제되어 한계효용이론 · 무차별곡선이론 · 현시선호이론으로 나누어 차례로 설명해 주었고 작은 문제도 무난하게 적어 60점 정도를 기대하였는데 상상과 비슷하게 59.00점이 나왔다.

다섯째, 선택과목의 각각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지적할 점은 선택과목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합격 뿐아니라 좋은 성적을 얻는 데 첩경이라는 것이다. 원래 공통필수 과목은 과거에도 행시과목이었고 점수가 매우 박한데 반하여 선택과목은 4개직렬로 나누면서 고시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점수 또한 잘 받으면 70점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정학의 경우는 뒤에서 언급되듯이 기본서 3권에 문제집 1권을 보았으나 문제집보다는 오히려 기본서를 나름대로 보충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름대로의 sub-note를 작성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재정학의 예산론은 행정학의 재무론과 유사한 점이 많아 공부를 병행해 나갔고 그래서 작은 문제를 잘 쓸 수 있었다. 큰 문제로서 「한국 일반재정수입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율, 간접세중심주의,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나누어 기억나는 수치도 언급해 주었다(65.33점).

여섯째, 제1선택과목은 내가 CPA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회계학을 선택하여 특별히 시험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에 임하였다. 큰 문제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현재의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을 중심으로 언급하였고 작은 문제인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자기주식의 회계 처리방법」「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회계처리의 예를 들면서 무난히 썼다. 그러나 나의 기대수준에 못미쳐 60점 정도로 상상했었으나 상상외로 좋은 점수를 받아 재경직 수석을 하

는데 견인차역할을 했던 것 같다(76.66점).

마지막으로, 화폐금융론의 경우는 거시경제학에서도 잘 공부하므로 특별히 부담이 없는 과목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보며 특히 앞으로는 금융자율화와 관련하여 중요시될 것 같다.

먼저 큰 문제로서「이자율탄력성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Keynes와 화폐수량설 · 통화주의로 나누어서 서술하였고 작은 문제로서 실질 잔고효과는 거시경제학 책에서도 잘 언급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썼으나 Factoring의 경우는 기존의 화금론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 당황하였으나 경영학에서 배운 정도로 언급해 주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경제학과 학생중에는 개념조차 알지 못한 학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기대하였으나 전혀 예상밖으로 51.66점을 받아 역시 채점은「교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4. 결실기

지리했던 4일간 시험은 매일 3시간 정도의 수면만을 허락하였고 오직 정신력으로 버티어 나갔다. 쉬는 시간의 1분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 같은 시험장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함께 조촐한 술좌석으로 시험의 여운을 달랬다.

발표까지의 50여일은 대학원 수업으로 바쁘게 보내는 중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평행선은 계속되었다.

10월 25일의 합격 발표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으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다시 어떤 성적으로 합격했는지 걱정이 되었다. 11월 15일 3차면접장에서 면접관의 기대이상의 호의도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키지 못하였다.

3차 면접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고시과 문을 들어섰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올해 행시최연소합격생인 심상승군이「정은보씨 축하합니다. 수석입니다.」라고 말해주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주로 내가 공부하였던 과정과 공부방법 그리고 내가 보았던 책에 관한 순서로 합격기를 썼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제현의 심금을 울릴만한 사연도 없고 하여 오히려 제현의 공부과정에 조그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공부방법론에 치중했다.

물론 목표에 도달하는 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책가운데 고시를 최선의 목표로 결정하였다면 먼저 이 목표만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는 목표의식,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주어진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아무튼, 보잘것 없는 합격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제현에 감사하면서 동도제현의 건투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